

## No.4 - 렌게에와 가에루토비 행사

긴푸센지 절에서 7월 초순에 열리는 가에루토비 행사는 매년 개최되는 연례 3대 전통행사 중에서도 가장 사람들의 이목을 사로잡는 의식입니다.

가에루토비는 렌게에(蓮華會)라는 법요의 일부입니다. 렌게에에서는 전통 의상을 몸에 걸친 슈젠도의 수도자들이 긴푸센지 절의 북서쪽에 위치한 야마토타카다시 오쿠다 지구에 있는 연못에서 연꽃을 채집하여 긴푸센지 절의 본존인 자오곤젠께 바칩니다. 그 후 자오도 앞에 마련된 기다란 무대 위를 선명한 녹색의 개구리 의상을 입은 남자가 본당을 향해 뛰어오르며 나아가 기도를 받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먼 옛날 한 남자가 신을 모욕했다는 이유로 높은 산 정상에 내버려졌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가 후회하는 모습을 보이자, 긴푸센지 절의 고승은 남자를 개구리로 바꾸고 자오곤젠 앞에서 범력을 이용해 인간으로 되돌렸다고 합니다. 가에루토비 행사는 이러한 전승에서 기인했습니다.

이 행사에서 ‘개구리’ 역을 맡은 사람은 지역의 남자들이 운반하는 가마를 타고 절까지 올라갑니다. 자오도에 도착하면 개구리 역의 사람은 슈젠도의 수도자들과 승려들이 경을 외는 소리에 맞춰 뛰어오르며 무대 위를 세 번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진심으로 반성한 개구리가 인간의 모습으로 되돌아갑니다. 겉으로는 조금 우스꽝스러워 보이지만, 이 행사는 과거 슈젠도의 수도자들이 종교적 능력을 겨루던 때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